

# 광양시, 맞춤형 주거 지원... '청년 정착 도시' 도약

### 취업 준비생·사회 초년생·신혼부부 등 전·월세 이자 등 혜택... 초기 정착 기여 임대주택 등 공공형 주거 인프라 확충

광양시가 청년 세대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정책을 전면 전개하며 '청년이 정착하는 도시' 조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

2일 광양시에 따르면 취업 준비생과 사회 초년생부터 신혼부부, 다자녀가정까지 아우르는 4

대 청년 주거지원 사업을 가동해 지역 내 장기 거주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고 있다.

시의 청년 주거정책은 국·도비 단기 사업에 지자체 예산을 더해 장기 정착을 유도하는 총합한 구조를 갖췄다.

정책 수혜의 형평성을 위해 '생애 최초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요건 충족 시 순차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해 실효성을 높였다.

대표 자체 사업인 '광양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지난 2018년 도입됐으며, 주택 구입 자금 이자는 연간 최대 300만원씩 최장 10년, 전세 자금 이자는 연간

최대 200만원씩 최장 8년간 과격 지원해 현재까지 청년 1천501명이 혜택을 받았다.

초기 정착을 돕는 보조 사업도 활발하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은 18-45세 청년에게 최장 12개월간 월 20만원을 지급하며 406명을 지원했다.

무주택 청년을 위한 정부 사업인 '청년 월세 지원' 역시 19-34세를 대상으로 최장 2개월 동안 월 20만원을 지원해 지금까지 444명의 주거비 부담을 덜었다.

결혼과 출산 이후의 주거 안정을 돕는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증금지리 지원사업'도 핵심 축으

로,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한 무주택 세대를 대상으로 연 최대 300만원을 최장 36개월간 지원하며, 현재까지 440세대가 안정적인 보증금지리를 마련했다.

특히 부부 모두 40세 이하인 신혼부부와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다자녀가정의 경우 면적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이 같은 전방위적인 주거 지원은 실제 인구 지표 개선으로 직결되고 있다. 광양시는 4년 연속 인구 증가세를 기록 중이며, 27-34세 청년 인구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

특히 청년층의 정착은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

져 지난해 12월 기준 합계출산율 1.38명(잠정)을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밖에 시는 현명성 지원과 더불어 민간 아파트보다 저렴하게 공급될 '광양 행복타운 고급형 청년임대주택' 건립을 추진하는 등 공공형 주거 인프라 확충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청년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한 최우선 과제는 주거 문제 해결"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등 청년이 머물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광양=양홍렬 기자



고흥군이 오는 11-18일 서울 여의도 더현대에서 고흥우주항공축제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사진은 지난해 나로호우주센터 일원에서 열린 고흥우주항공축제 모습. <고흥군 제공>

## “서울에서 미리 보는 고흥우주항공축제”

### 11-18일 더현대서 팝업 개최 3가지 테마존 지역 방문 유도

고흥군이 지역대표 축제인 우주항공축제를 수도권 도심 한복판에서 미리 선보이며 실질적인 지역 체류형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

2일 고흥군에 따르면 오는 11-18일 서울 여의도 더현대에서 '고흥우주항공축제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서울에서 고흥으로 이어지는 우주여행의 출발점'을 콘셉트로 기획됐다.

단순 전시를 벗어나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국내 최고 우주기관과 협업체 도입형 체험 콘텐츠를 제공한다.

팝업 공간은 3가지 테마로 꾸며진다. '지구 문명존'은 누리호 발사체 축소 모형과 로켓 체험, 고성능 천체망원경 관측, KAIST 로봇(스파이더 로버) 체험존 등이 마련되며, '우주 문명존'은 붉은 토양과 암석 등으로 화성 환경을 실제처럼 재현해 미래 탐사 환경을 구현한다.

'우주인 카니발존'에서는 우주복 착용 체험이 진행되며, 현장에 '누리호 발사장 견학' 예약

접수대를 운영해 팝업스토어 방문 경험이 고흥 지역 직접 방문으로 이어지도록 연계 관광 모델을 구축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수도권 시민들이 우주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홍보 모델"이라며 "서울에서 시작된 관심이 실제 고흥 방문으로 이어지도록 연계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16회 고흥우주항공축제는 오는 5월2-5일 나로우주센터 일원에서 열리며, 공군 블랙이글스 에어쇼와 실물 발사체 전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주성학 기자

## 장흥군, 옛 교도소 '빠빠용Zip' 식목일 축제

### 오는 5일 참여형 식재 행사 반려식물·업사이클링 체험

장흥군이 과거 격리의 공간이었던 옛 교도소를 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통한 친환경 문화예술 재생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한다.

2일 장흥군에 따르면 오는 5일 식목일을 맞아 옛 장흥교도소를 재생한 문화공간 '빠빠용Zip'(사진)일원에서 참여형 식목 축제의 '고고고(심고·웃고·잇고)'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삭막했던 교도소 담장 안에 초목



의 식물을 심어 공간에 대한 애착을 형성하는 문화 재생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주요 프로그램은 지정된 플랜트 박스에 반려식물을 심는 '개인 존' 조성과 버려지는 폐생수통을 활용해 수직형 화분을 만드는 'ESG 업사

이클링' 활동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개인 존에 식재된 식물은 행사 이후에도 참여자가 방문해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이를 통해 해당 공간이 지역민의 일상과 연결된 실질적인 문화 쉼터로 자리 잡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행사는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빠빠용Zip 외부 공간에서 진행되며, 참여자에게는 무료입장 혜택과 꽃씨가 제공된다. 현장 인증을 마친 선착순 50명에게는 추가 모자를 증정한다.

장흥군 관계자는 "단절됐던 공간이 주민들의 손길을 거쳐 생동감 있는 문화 현장으로 전환되는 뜻깊은 행사"라며 "많은 군민이 방문해 반려식물을 심고 공간 재생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흥=노홍렬 기자

## 보성군, 중장년 고립 예방 '따숨 한 끼' 배달

### 보성시니어클럽과 업무협약

보성군이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중장년층의 결식을 예방하고 총합한 사회적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맞춤형 식사 지원에 나선다.

2일 보성군에 따르면 최근 보성시니어클럽과 '따숨 한 끼 식사 배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민관 협력체계를 가동했다.

이번 사업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9개월간 운영되며, 결식 우려가 있는 40-64세 고독·고립 위험 중장년 70가구를 주요 대상으로 선정했다.

양 기관은 대상 가구에 월 1-2회 밀반찬을 직접 배달하며 안부를 확인하는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고, 정기적인 방문 모니터링으로 생활 실태

진해 선제적인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주력할 방침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식사 배달을 매개로 고독·고립 위험 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속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겠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 빈틈없는 지역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임병연 기자



## 곡성군, 새내기 귀농인 농기계 실습 교육

### 10명씩 소규모 맞춤형 방식 트랙터·관리기 등 직접 조작

곡성군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생활 적응과 초기 영농 기반 마련을 돕기 위해 실무 중심의 맞춤형 교육 지원에 적극 나선다.

2일 곡성군에 따르면 최근 군 농업기술센터 농기계팀과 연계해 초보 귀농인을 대상으로 트랙터와 관리기 등 농기계를 직접 조작해 보는 현장 실습 교육을 추진했다.

이번 교육은 교육생들의 이해도와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 오전과 오후 각각 10명씩 소규모 맞춤형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문 지도사의 밀착 지도 아래 농기계 기본 구조와 안전 수칙 등 이론부터 시동, 경운 작업 등 단계별 실습이 체계적으로 이뤄졌다.

군은 올해 귀농·귀촌인을 위한 생활기술교육을 총 10회 운영할 계획이며, 상반기 중 5회를 선제적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오는 10일에는 비닐멀칭 교육장에서 고품질 작물 재배를 주제로 한 후속 교육을 이어간다.

곡성군 관계자는 "올해 처음 도입한 실습 위주 교육이 귀농인의 초기 영농 부담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목공예와 화훼 등 현장 중심의 실용성 있는 교육을 지속 확대해 안정적인 정착을 돕겠다"고 말했다. /곡성=김영필 기자



## 담양군, 4월 정례조회 현장 밀착 행정 박차

### 공직자 150여명 주요 사업 점검·보완

담양군이 본격적인 사업 추진기와 상층객 방문 시기를 맞아 현장 밀착형 행정을 대폭 강화해 군민 체감 성과 창출에 총력을 기울인다.

2일 담양군에 따르면 전날 군청 민양정실에서 공직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4월 정례조회'를 열고 군정 현안 공유와 내실 있는 업무 추진을 다짐했다.

이번 조회에서는 1분기 공중계이별 정비사업 공모 선정 등의 결실을 먼저 공유했으며, 군은 이를 동력 삼아 이달부터 주요 사업 진행 상황

을 면밀히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등 현장 중심의 행정력을 한층 끌어올릴 방침이다.

또한 영농철 가뭄에 대비한 농업용수 확보와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한 불법 소각 단속 등 쾌적한 지역환경 조성에 행정력을 모은다.

더불어 오는 5월 열리는 '담양 대나무축제'의 성공 개최를 위해 관광지 환경 개선과 철저한 사전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

이승모 행정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중앙정부 정책 흐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비 확보를 위한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 여수시, '제15회 수산인의 날' 행사 성료

### 전국 수산인 1천500명 집결

여수시가 전국 수산인들의 화합과 '2026여수 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대규모 행사를 열고 수산인의 미래 비전을 선포했다.

2일 여수시에 따르면 전날 여수세계박람회장 엑스포디지털갤러리 일원에서 해양수산부가 주최, 전남도와 한국수산산업융합협회 등이 공동 주관한 '제15회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가 개최됐다.

함께 지킨 바다, 함께 키우는 수산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현장에는 전국 수산인 등 1천500여명이 참석했으며, 심포지엄을 시작으로 빅오쇼 해상무대에서 치어 1만2천미 방류 행사와 기념식이 이어졌다.

기념식에서는 수산업 발전 유공자 포상과 함께 올해 열리는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을 기원하는 특별 퍼포먼스가 진행됐으며, 행사장 일원에는 참돔과 전복 등 지역 대표 수산물 시식



회와 정책 홍보 부스가 마련됐다.

정현구 여수시장 권한대행은 "세계섬박람회가 열리는 역사적인 해에 개최된 이번 행사가 우리 수산인의 위상을 알리고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매년 4월1일로 지정된 수산인의 날은 수산업과 어촌의 가치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여수=김진선 기자